

2010 새해에는

임충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영세 기업 체질개선 돕겠다”

“광주·전남은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인프라 뒷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기회 요인에 주목해야 합니다.”

임충식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18일 “광주·전남은 취약한 인프라 탓에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활용한 친환경·녹색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12월 부임한 임 청장은 광주·전남지역 경제의 특성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구직자 데이터베이스와 우수 중소기업 6만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구직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정확한 기업정보를 통해 원하는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전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전국화하고,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농협 등 8개 금융기관에서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광주와 부산, 경기도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 통합에

오염 안된 환경 활용  
친환경·녹색산업키워야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치우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은 소수 대기업에 편중돼 있으며, 대다수 업체도 영세해 경쟁력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금호 사태처럼 대기업 중 하나만 흔들려도 지역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체질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를 대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글로벌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임 청장은 지난해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도왔다. 비즈니스지원단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선정된 경영기술지도사를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

호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16명이 참여해 경영 애로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 전반을 진단하고 처방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임 청장은 이를 위해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올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투자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에 전력을 기울인다.

임 청장은 특히 “노동부와 합동으로 80만명의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  
기업들 경영애로 해결할 것

합의한 상태”며 상품권 구입시 3% 할인도 해주는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금호그룹 위기와 관련해 “협력업체들이 발주물량 감소와 조급 단축, 자금 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80여개사 전체를 조사해 경영 애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 출신인 임 청장은 광주고와 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했다.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으며 지방중소기업청장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내 첫 안드로이드폰

1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모토로라 모토로이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도우미들이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2.0 플랫폼을 탑재한 모토로이는 구글 모바일 검색은 물론, G메일과 G토크, 구글 맵 등의 콘텐츠가 기본 탑재돼 워젯 형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파루 주식 70번 이상 ‘손바뀜’

코스닥 시장서 최고... 광주·전남 상장사 주식 회전을 급상승

지역 상장사들 기대반 우려반

광주·전남 지역 상장사들의 2009년 주식 회전이 전년보다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산단에서 방역·위생제품 등을 생산하는 (주)파루는 70회 이상 주인이 바뀌어 코스닥 시장에서 최고 회전을 기록했다.

1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2009년 상장주식(유가증권 15, 코스닥 10) 회전을’에 따르면 파루는 유가증권시장 470%, 코스닥시장 1천248.15%로 전년보다 각각 130.07%포인트, 709.2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상장주식 1주당 유가증권시장은 4.7번, 코스닥시장은 12.4번 매매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유가증권

시장 전체회전을 408.77%(4회), 코스닥시장 전체 회전을 884.37%(8.8회)를 웃도는 수치다.

유가증권 시장 회전을 상위 종목은 로케트전기(2천237.14%), 대유신소재(829.17%), 금호산업(667.25%) 등이며 코스닥시장 회전을 상위 종목은 파루(7천76.52%), 상원파이프(1천729.84%), 지엔알(1천435.9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혜양조(81.13%), 광주신세계(30.86%), 조선내화(36.27%) 등의 회전율은 하위권에 머물러 장기적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광주 증권업계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 주식회전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지역 상장사들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주식 회전을=거래량 회전이이라고도 하며 전체 상장주식수가 연간 몇 회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백분율을 말한다. 거래량에 연간 개장일수를 곱하여 이 수치를 상장주식 총수로 나눈 백분율이다. 이 지표는 거래량으로부터 시장전체 또는 개별종목의 인기도 측정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수치가 높으면 인기과열을 나타낸다. 거래량 회전이 100%라면 상장주식 총수가 연간 1회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광주·전남의 2009년 상장주식 회전을 200% 이상은 유가증권시장 11종목, 코스닥시장 6종목으로 전년 대비 각각 2종목 증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터넷 불편 상담

☎ ‘118’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킹 등 사이버 역기능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터넷 관련 문의를 ‘118’로 전화로 걸어 상담할 수 있는 ‘118 인터넷 상담센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해킹 및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불법 스팸 등 인터넷상 역기능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 도메인 네임 관련 문의 등 국민이 인터넷 이용 중 느낄 수 있는 모든 불편이나 궁금증을 상담한다.

이는 기존 KISA가 운영해오던 해킹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한 피해 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연합뉴스

국내 최고 장수 상표는?

56년 사용 선풍기·진로소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상표는 선풍기, 진로소주, 펄시콜라, 코카콜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상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50년대 국내의 기업 등이 등록한 상표는 모두 4천 535건으로, 현재까지 상표권으로 남아 있는 것은 264건(5.8%)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장수상표는 56년동안 사용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선풍기, 진로소주 등

과 외국기업의 펄시콜라, 코카콜라 등이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40년 이상 장수상표 1천건을 분석한 결과, 국가별 상표권자 기준으로 미국이 43%로 가장 많았고, 한국(16%), 독일(13%), 스위스(8%), 일본(7%) 등의 순이었다. 지정상품 기준으로는 화학품과 약품·의료기구가 32%로 가장 많고, 농축수산물·음식류(15%), 화장품·세제(6%), 의류·신발·가방(5%) 순이다. /연합뉴스

주식시장 시총

1천조원 눈앞

국내 주식시장이 시가총액 1천조원 시대를 머지않아 다시 열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합계는 모두 994조4천440억원으로 ‘시총 1천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시장별 시총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901조9천920억원, 코스닥시장 92조6천480억원 등이다.

두 시장 시총 합계가 1천조원을 넘게 되면 2008년 6월 9일 이후 1년 7개월 만에 다시 시총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 파루는 어떤 회사

지난 1993년 창립한 순천산단 입주기업 (주)파루가 지난해 코스닥 최고 주식 회전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파루는 지난해 10월 28일 하루 거래금액 3천864억원을 기록, 같은 날 삼성전자가 1일 거래액 3천275억원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

바이오·환경제품 생산하는 ‘순천기업’

인 이슈종목으로 부각됐다.

18일 현재 1주당 2천350원에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서 9천원선까지 거래되기도 했다.

지역 증권업계에서는 파루가 주목받은 것은 신종플루 테마주로

품혔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회사는 손소독기, 공간소독기 등 위생·산업환경 부문 제품을 생산,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소독 제품 수요량 증가로 폭발적인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ukje Boryeonggi' (국제보청기) featuring a family and various product images. Text includes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and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안보입니다. 3. 가격이 마음에 듭니다.' Website: www.kbr.com